

2019-09-01 일 10차 지공여행 포일 범계

아침7시 퇴근하면서 포일리 방향으로 걸어서 안양농산물도매시장을 둘러보고 계원예술대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고가밑으로 걸어가다.

예미 입시로 계원예술대에 갔던 추억도 잠시 떠올리며 딸들이 제길을 알아서 잘가고 있음을 고맙게 생각했다.

더구나 건강하니 바랄게 무어냐?

더더구나 예쁘기까지 하니...

ㅋㅋㅋ

자뻑이 도를 넘었나?

즐겁게 걷는 중이다.

평촌 먹거리촌 9번 출입구로 들어가 2번으로 나오니 평촌 학원가가 거창하구나.

다시 1번으로 가면서 대영이 부부와 같이 먹었던 음식점을 지나 미술이에게 뭔가 사줬던 피자집?을 보며 옛생각을 떠올렸다.

잘 살고 있겠지.

평안공원 평촌초등학교를 지나 중앙공원에 들어가 소녀상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며 생각에 잠겼다.

평촌 문화의 거리를 걸어 범계역에 도착하니 8:30

1시간 반을 걸었구나.

어서가서 시원한 막걸리 한잔하고 점심에 요리실습3번 갑오징어 볶음을 해봐야지.

오늘은 용선생과 슬선생에게 제대로 배워야겠다.

기대된다.

기대하시라!